

## 2. 객담도말검사서 확인된 전이성 신세포암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in Sputum Cytology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해부병리과  
이응석, 김한겸, 김인선

원발성 폐종양이 아닌 악성 종양이 객담도말검사서 진단되는 빈도는 Dail 등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편평상피세포암이 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선암 34%, 림프종과 백혈병이 8%, 그외의 악성 종양이 18%를 차지한다. 그러나 편평상피세포암은 인두와 후두, 구강점막, 혀, 식도 등 폐와 인접한 부위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이 대부분이고, 객담도말검사서 진단되는 가장 흔한 폐의 전이성암은 선암이다. 이중 유방암, 신세포암, 대장암이 주로 진단되었고, 그 빈도는 각각 15%, 6%, 5% 였다. 신세포암은 폐와 림프절, 간, 뼈, 부신 등으로 잘 전이하는데, 객담도말검사서 폐에 전이된 유방암은 특징적으로 둥근 핵 속에 매우 큰 핵소체가 있어 부엉이 눈과 같은 세포가 흔히 관찰되며, 대장암은 배경에 종양괴사 소견이 심하고 과염색성의 길쭉한 핵이 모여 담장같은 배열을 하나 인환세포암인 경우 분비성 과립에 의해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진 핵이 관찰되며 mucin 염색에 양성을 보인다는 점이 폐의 전이성 신세포암과 다른 소견이다.

저자들은 최근 객담도말검사로 진단된 폐의 전이성 신세포암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72세 남자로 3개월전부터 발생한 마른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과거력상 고혈압 이외에는 다른 특이 사항이 없었다. 폐의 단순흉부촬영소견상 양쪽 폐의 전장에 걸쳐 경계가 불분명하며 크기가 다양한 수많은 결절이 발견되어 혈행성의 폐전이암이 의심되었다. 객담도말검사서 괴사나 출혈 소견이 없는 비교적 깨끗한 배경에 종양세포들이 서로 모여 2차원적인 군집을 이루고 있거나 개개로 흩어져 있었고, 종양세포들의 크기는 중등도로 모양은 서로 비슷하였으며, 핵 대 세포질비가 높았다. 핵은 둥글고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었으며, 염색체가 조악하였고, 작고 선명한 핵소체가 있었으며, 세포질은 특징적으로 공포성 혹은 과립성이었다. 전이성 신세포암의 진단하에 전신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좌측 신장에서 장경 7cm 인 종괴가 발견되었다.